

재해는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의식

매일 아침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무슨 일로 밖에 나가게 될 때 으레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애야! 차조심하고..... 길조심 하거라.....”
 아이들에게 당부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학자 Abraham H. Maslow는 인간의 다섯 단계 욕구 중에서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의·식·주를 의미하는 신체적 욕구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 세 번째로 사회적 욕구, 네 번째로 자존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들고 있다.

역시 미국의 H. C. Smith라는 학자도 이와 비슷한 학설을 펴고 있다.

그는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의·식·주·성), 두 번째로 직장의 안전과 가정의 안정에 대한 욕구, 세 번째로 귀속의 욕구, 네 번째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작업을 통한 창조의 욕구를 들고 있다.

이 두 학자 모두가 사람의 신체적 또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는 공통적으로 안전을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들은 첫 번째의 욕구와 두 번째 안전의 욕구를 통틀어서 기본적 욕구라고 말하고 있어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즉, 안전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곳에서는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가 된다.

재해는 왜 발생하고 있는가?

이 처럼 우리 모두가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을까?
 그 몇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안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뜻밖에도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맨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 안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과 기관이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 “설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 또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이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따라서 안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짐 때문에 매년 수만명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한 타인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심지어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고 있는 사람을 계속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그들의 안전의식을 때때로 일깨워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압적인 규제조치가 필수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앗차!” 하는 순간의 실수다.

이러한 실수는 하나의 불안정한 행동은 부주의라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즉, 재해를 예방하자면 실수라는 불안정한 행동을 범하여서는 안되고, 그러한 불안정한 행동을 예방하자면 순간적 부주의라는 근본적인 요인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행동을 방지하는 포인트




- 무엇보다도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올바른 작업방법을 끈기 있게 반복하여 지도하고 교육시킨다.
- 작업안전에 대한 자기 개발이나 좋은 제안을 적극 유도한다.
- 불안정하게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시킨다. “이 정도야!” 또는 “나중에!” 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 불안정하게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시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떠한 연유로 불안정한 행동이 행하여졌는지를 철저히 규명한다.

불안정한 행동은 왜 발생하는가?

대개의 경우 불안정한 행동은 불안정한 인적요인에 의하여 유발된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가지 주위환경의 요인으로 인하여 주위가 산만해 질 때, 신병·과로·음주·약물영향과 같은 신체적 이유나 근심걱정이나 잡념과 같은 심리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인하여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을 때에는 흔히 불안정한 행동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재해발생의 위험도 급증하게 된다. 

2001년 1/4분기 업무상질병자 증가

노동부의 2001년 1/4분기 산업재해 현황 발표에 의하면 컴퓨터 사용 및 단순반복 작업 등으로 인한 경견완장해, 직업성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은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청, 중금속중독 등 직업병자수는 277명으로 전년동기 250명 보다 10.8% 증가하여 최근 직업병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증가현상은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업무상질병(사망자 포함) 만인율은 1.02으로 전년동기 대비 0.07P(7.37%)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대비 업무상질병자 비교표〉

구 분	총 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기타	소계	신체부담작업	뇌·심질환	요통	기타	
2001. 3월	계	979	277	95	117	11	12	8	34	702	136	451	94	21
	요양자	747	192	19	117	11	12	5	28	555	136	313	94	12
	사망자	232	85	76	0	0	0	3	6	147	0	138	0	9
2000. 3월	계	762	250	123	82	1	7	8	29	512	57	380	67	8
	요양자	518	140	19	82	1	5	7	26	378	57	252	67	2
	사망자	244	110	104	0	0	2	1	3	134	0	128	0	6
증감 (증감율)	계	217 (28.5)	27 (10.8)	-28 (-22.8)	35 (42.7)	10 (1000.0)	5 (71.4)	0 (0.0)	5 (17.2)	190 (37.1)	79 (138.6)	71 (18.7)	27 (40.3)	13 (162.5)
	요양자	229 (44.2)	52 (37.1)	0 (0.00)	35 (42.7)	10 (1000.0)	7 (140.0)	-2 (-28.6)	2 (7.7)	177 (46.8)	79 (138.6)	61 (24.2)	27 (40.3)	10 (500.0)
	사망자	-12 (-4.9)	-25 (-22.7)	-28 (-26.9)	0 (0.0)	0 (0.0)	-2 (-100.0)	2 (200.0)	3 (100.0)	13 (9.7)	0 (0.0)	10 (7.8)	0 (0.0)	3 (50.0)

※ 업무상질병 만인율 = 업무상 질병자수/근로자수 × 10,000

※ 직업병 : 작업환경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발병원인)이 뚜렷한 질병 (예:진폐, 난청, 중금속 중독 등)

※ 작업관련성 질병 :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업무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신체부담작업, 뇌·심질환 및 요통)

※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병 :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발생하는 질병 (예:경견완장해 등)

※ 경견완장해 : 목, 어깨, 팔 부위에서 후두부와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저리고 아프고 마비되는 증상

※ 직업병의 기타 :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진동장해, 세균바이러스 등

※ 작업관련성 질병의 기타 :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패혈증 등